

##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류연경<sup>o</sup>, 김민희<sup>\*</sup>

<sup>o</sup>광주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sup>\*</sup>한국교통법학회

e-mail: ryuyg0521@naver.com<sup>o</sup>, alsfwd1@naver.com<sup>\*</sup>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on the Punishment of Drunk Driving

Yeon Gyeong Ryu<sup>o</sup>, Min-hee Kim<sup>\*</sup>

<sup>o</sup>Dept. of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Kwangju women's University,

<sup>\*</sup>Korean Traffic Law Association

#### ● 요약 ●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 크게 줄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음주운전 법적 기준 및 법정 형량, 등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음주운전 사상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아직도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하지 않다는 인식이 크다. 이에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나아가 미래 자동차 디지털화 시대에 맞춰 변화될 법 제도의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키워드:** 음주운전(drunk driving), 도로교통법(the Road Traffic Laws), 윤창호법(the expressive function of criminal law)

## I. Introduction

2018년 군대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한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주장이 확산되었고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윤창호법”이 시행 후 음주운전의 형량과 교통범죄의 양형 기준이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주운전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음주운전의 개편을 살펴보고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여 그 시사점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II. Opening of drunk driving

### 1. The significance of drunk driving

음주운전이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으로 보고 있다. 음주는 판단 능력 및 운동능력을 저하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 2. Punishment criteria for drunk driving

#### 2.1. Korean Criterion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시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을 모두 지게 되어 있다. 이 중 형사적 책임으로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로는 높아야 6년, 8년, 10년, 11년이었으며,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항소심 판결에서 13년 형을 선고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에 잠시 감소하였으나, 2020년부터 45%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면서 높은 재범률을 보인다.

## 2.2. Japan Criterion

일본에서도 몇 번의 끔찍한 음주운전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가해자가 받은 형량은 고작 4년이나 5년 6개월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일본의 음주운전 처벌 법정형이 낮기 때문이었다. 이에 일본은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하였고 계속된 개정을 통해 부상사고 시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하게 하였다[1].

이후 실제로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은 20년, 15년, 20년 등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다. 나이가 음주운전 동승자뿐 아니라 운전자에게 술을 권하고 제공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그 결과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10년 사이 1/5로 크게 감소하였다[2].

## III. Implications of drunk driving punishment and ways to improve it

### 1. The Implications for drunk driving punishment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와 일본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법정형만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법정형이 더 높다. 그러나 실제로 형이 선고된 형량을 비교해보면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선고되는 형량이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하며, 원칙적 구속력은 없으나 양형기준을 이탈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3]. 현재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음주운전 사망 시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대부분 그 안에서 형을 선고하고 있다[4].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윤창호법”의 일부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는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2회 이상 적발되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무조건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 2. The Improvement for drunk driving punishment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처벌이 다소 약하게 나오면서 국민들의 이해도는 떨어지고 사실상 음주운전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일본의 경우처럼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지금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재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린 “윤창호법”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나 인명사고피해 현황, 사고피해액, 시효 등 여러 요소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차량 시동장치가 내년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음주운전 위반에 대하여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

## IV. Conclusions

매년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윤창호법”이 일부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는 인식이 심어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 상식선에서의 적절한 처벌과 법관의 양형기준 사이에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을 보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처벌은 강화되더라도 명확한 처벌기준을 제시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법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나아가 가까운 미래에 자동차 자율주행이 상용화됨에 따라 빠른 상용화를 위한 논의의 보다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논의를 통해 안전한 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Kim Yeon-joo, "Current State of the Crime of Fatal Driving Style of Japan and Its Implications", Dankook Law Review, Vol. 41, No. 3, p. 174, Dec, 2017.
- [2] KOTI, "Zero traffic accident brief", Korea Transport Institute, Vol. 5, No. 4, p. 6, Dec, 2018.
- [3] Sentencing Commission,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standard/standard.jsp>
- [4] Sentencing Commission kdhong,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
- [5] Busan Magazine,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20711475267281>